

개혁주의 선교 개념의 확장:

송영(Doxology)으로서의 선교

- 이사야 42:1-9의 “이방의 빛”을 중심으로* -

The Concept of Mission in Reformed Perspective:

Mission as Doxology

- Focused on “A Light to the Nations” in Isaiah 42:1-9 -

김은수 박사 (Kim Eun-Soo)

승실대학교 겸임교수 (조직신학)



본 논고에서 필자는 지금까지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이 감당해야만 했던 선교적 사명의 구체적인 의미를, 특별히 이사야 42:1-9에 나타난 “종의 노래” 및 관련 성경본문들을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즉, 성경이 말하는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적 선교 이해에 대한 지금까지의 간략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현재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등의 다양하고도 심각한 도전들로 말미암아 일종의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 기독교 선교에 대하여 (이러한 상황은 비단 선교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성경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에 이르기까지 신학 전반에 걸친 위기이다), 성경적 개혁주의 입장에서 선교의 본질적 개념을 재정의하고 확장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선교는 땅 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 논문 접수일: 2008. 12. 20. 게재 확정일: 2009. 3. 7.

로 하여금 창조자시요 구속자이신 야웨 하나님(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함이며, 그 본질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나라들에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며 구원이다. 그러므로 21세기의 기독교 선교학은 창 1:28의 “문화대명령”(cultural mandate)과 마 28:19-20 (cf. 행 1:8)의 “선교대명령”(missionary mandate)을 통합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혁주의적 영역 주권이론에 따라, 선교의 새로운 전선은 기존의 국경과 민족의 개념에 더하여 정치, 외교,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철학과 사상, 과학과 기술, 생태 환경, 기업 비즈니스 등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한 그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포진하고 있는 소위 “이방 영역들”에 더욱 적극적이며 창조적으로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선교의 개념, 구약성경에서의 선교, 원심적 선교, 구심적 선교, 송영으로서의 선교, 이방의 빛, 종의 노래, 야웨의 종, 개혁주의 신학

1. 들어가는 말

“선교”의 주제는 구약신학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과연 구약성경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참된 하나님, 야웨 유일신 신앙의 전파 혹은 다른 이교 민족들의 개종을 목적으로 ‘파송’(going out)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선교 개념 혹은 선교 행위를 찾아 볼 수 있는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신약에서처럼(cf. 마 28:19-20; 행 1:8) 구약에서도 어떤 명확한 “선교적 위임명령”을 찾아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한다. 예를 들어, 마틴-아차드(R. Martin-Achard)는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 되는 것(to be the Chosen people) 이외에 이방인들에 대한 어떠한

한 다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¹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본질적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존재하는 것”(presence)인데, 이것은 그 안에서 야웨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분의 간섭을 떠나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to be)을 뜻한다. 세상 가운데 단지 선택된 백성으로 “존재함” 그 자체로서 이스라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며, 또한 이방인들을 그들과 함께 야웨 하나님 경배에 참여하도록 소환하는 것이다.²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오직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중재적 기능”(mediatorial function)만이 있으며, 이것은 이방나라들과 그들 자신 사이에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라는 “삼중적 관점”에서 기능한다.³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중재를 통하여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방 나라들에 알려진다. 따라서 마틴-아차드에 의하면, 이방 민족들의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는 구속사에 있어 단지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사건일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기독교회의 선교와 관련하여 “세상의 복음화는 본질적으로 말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현존(presence)-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현존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의 문제”일 뿐이라고 결론 내린다.⁴ 블라우(J. Blauw)⁵와 한(F. Hahn)⁶을 비롯하여 많은 다른 학자들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마틴-아차드의 “현존”의 개념을 구약에 있어 선교에 대한 본질적인 모티브로 파악하는데 동의한다. 환언하자면, “구심적 선교”(centripetal mission-이스라엘에게로 나아옴)와 “원심적 선교”(centrifugal mission-이방나라들로 나아감)의 개념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구분함

¹ R. Martin-Achard, *A Light to the Nations: A Study of the Old Testament Conception of Israel's Mission to the World*, trans. John P. Smith (Edinburgh: Oliver and Boyd, 1962), 75.

² Martin-Achard, *A Light to the Nations*, 76.

³ Martin-Achard, *A Light to the Nations*, 77.

⁴ Martin-Achard, *A Light to the Nations*, 79.

⁵ Cf. J. Blauw,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New York: McGraw-Hill, 1962).

⁶ Cf. F. Hahn,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trans. F. Clarke (London: SCM, 1965).

으로써, 그들은 전자가 구약에서의 본질적인 선교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⁷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또 다른 그룹의 학자들은 ‘원심적’ 선교개념으로서의 신약적 선교의 토대와 모티브를 구약에서 찾음과 동시에, 심지어 구약에도 분명한 선교적 위임명령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복음주의적 성경신학자 월터 카이저(Walter C. Kais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약에는 선교적 메시지나 비전이 없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지만…그러한 루머나 견해는 구약성경 그 자체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⁸ 그리고 글로버(Robert H. Glover)는 선교에 대한 주장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음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한다.⁹ 한 걸음 더 나아가, 케인(J. H. Kane)은 사실 구약성경은 하나의 선교에 관한 책이며, 야웨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¹⁰ 버쿨(J. Verkuyl)은 소위 ‘현존’으로서의 구약적 선교개념을 다음과 같이 더욱 직접적으로 논박한다. “나는 구약에서 선교적 모티브가 단지 현존의 개념으로만 찾아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옳다는 주장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나는 솔직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결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선교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¹¹ 그러면서 그는 특별히 종의 노래들 가운데 하나

7 피터스(G. W. Peters)는 선교와 관련하여 주장하기를, “성경은 두 가지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는 ‘원심적(centrifugal)’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심적(centripetal)’인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구약성경은 전적으로 후자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반면에 신약성경은 전자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G. W. Peters,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Chicago: Moody Press, 1972), 21.

8 Walter C. Kaiser, “Israel’s Missionary Call,” 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eds., R. D. Winter and S. C. Hawthorn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81), 25.

9 Robert H. Glover, *The Bible Basis of Missions* (Chicago: Moody Press, 1946), 15.

10 J. H. Kane,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Book, 1976), 18. 그의 또 다른 저작에서, 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선교의 모든 측면들에 대한 진리의 귀중한 광산이다. 우리는 선교를 말하는 본문들을 찾기 위해 굳이 힘들게 사냥할 필요가 없다.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성경의 주된 관심이 바로 사람과 또한 그의 구원에 대한 것이며, 바로 이것이 바로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이다.” J. H. Kane, *The Christian World Mission: Today and Tomorrow* (Grand Rapids: Baker Book, 1981), 25.

인 이사야 49:6에 나타난 ‘이방나라들의 빛이 되라’는 구절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선교적 사명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¹² 동일한 의미에서, “신약은 구약으로부터 자라 나온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헤드룬드(Roger E. Hedlund) 역시 이사야의 종의 노래에서 신약의 ‘원심적’ 선교개념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¹³

우리는 종의 노래들에서 [이스라엘에게로] *나아오는 것* (Coming in) 으로서의 구약의 일반적인 의미와 대비되는 *나아가는 것* (Going out) 으로서의 선교를 분명히 찾을 수 있다…이사야 42:1과 49:6, 그리고 또 다른 유사한 본문에서 이방으로 나아가는 선교가 있다. “공의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구원이 모두에게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에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비록 그러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회 시대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이미 구약의 종의 노래들에서 우리는 분명히 ‘원심적’ 선교(centrifugal mission)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¹⁴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헤드룬드는 이사야 40-55장의 종의 노래들이 바로 구약에서의 “선교적 정점”이라고 주장한다.¹⁵

그러나 마틴-아차드와 다른 학자들은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를 선교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한다. 그에 의하면, 이사야는 이방 나라들의 개종, 즉 선교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촉구하고 책임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야웨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첫째 되고 우선하는 관심과 그의 공훈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지 이방 나라들을 위한 것이 아

¹¹ J. Verkuyl, *Contemporary Missiology: An Introduction*, trans. and ed. D. Cooper (Grand Rapids: Eerdmans, 1978), 94.

¹² Verkuyl, *Contemporary Missiology*, 94.

¹³ Roger E. Hedlund,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the World: A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1991), 151.

¹⁴ Hedlund,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the World*, 116-17 (italics mine).

¹⁵ Cf. Hedlund,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the World*, 110.

니다.¹⁶ 따라서, 이사야 42장과 49장의 몇몇 성경 본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에 그는 결론 내리기를,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 용어의 통상적 의미에 있어서 선교적 메시지가 결코 아니다…선지자는 이교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지구 구석구석을 샅샅이 찾아 헤메고 다녀야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이스라엘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선택된 백성의 사명은 단지 ‘존재하는 것’(to exist)이며, 그럼으로써 세상 속에서 그러한 현존 자체가 야웨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¹⁷ 상황이 이러하다면, 과연 어떠한 성경 해석이 옳은가? 우리는 구약성경, 특별히 이사야의 종의 노래들에서 과연 어떤 분명한 선교적 위임 명령을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러한 논쟁의 초점이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문제이며, 이를 위하여 특별히 이사야 42:1-9(cf. 49:6)에 나오는 “이방의 빛”(a light to the nations, 42:6과 49:6)에 대한 성경해석학적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틴-아차드와 다른 여러 학자들의 다음과 같이 좀 더 세련된 주장, 즉 “통상적 의미”에 있어서 소위 ‘원심적’ 선교 개념을 종의 노래들뿐만 아니라 전체 구약성경에서 찾아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은 소위 구약의 ‘구심적’ 선교 개념과 신약의 ‘원심적’ 선교 개념으로서의 이분법적 구분이 과연 적절한 것이며 절대적인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점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보쉬(David J. Bosch)는 선교에 대한 그의 저작,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1991)에서 지적하기를 현대 선교학에서 선교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일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종의 ‘패러다임 전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관찰과 분석에 의하면, “(a) 신앙의 전파, (b) 하나님 나라의 확장, (c) 이교도의 개종, 그리고 (d) 새로운 교회의 설립”이라는 전통적 의미에 있어 선교 개념은 전체 선교

¹⁶ Martin-Achard, *A Light to the Nations*, 13.

¹⁷ Martin-Achard, *A Light to the Nations*, 31.

역사에 있어 사실 “아주 최근에 발생”한 것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교 개념은 현재 포스트모던 에큐메니칼 선교학에서 점차적으로 퇴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독교 선교에 대한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의 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¹⁸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여, 보쉬 자신이 그러한 전통적 선교개념을 다음과 같이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기독교 선교는 다른 종교들과의 경쟁, 따라서 개종 행위나 신앙의 전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아니며, 또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행위도 물론 아니다…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선교란 불확실한 미래를 걸고 예수의 자유케 하는 선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참여이다.*”¹⁹ 그러나 보쉬가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스트모던 선교적 패러다임들이나 혹은 그 자신이 제시하는 기독교 선교에 대한 재정의가 과연 전통적 선교 개념이나 패러다임을 대체할 만큼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개혁신주의적 또는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그러한 급진적 포스트모던 에큐메니칼 선교학의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성경적 선교 개념 혹은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나아가 비단 선교학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과 신학 전체의 존재 이유와 패러다임의 총체적 구성 원리의 문제가 걸려있는, 바로 이러한 절박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한 시도로서, 특별히 이시아서의 종의 노래들과 여러 관련 구약 본문들을 통하여 개혁신주의적 기독교 선교 개념 혹은 패러다임을 찾아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이다.

¹⁸ David J. Bosch,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1-2. 그는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포스트모던 선교적 패러다임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Mission as the Church-with-Others,” “Mission as *Missio Dei*,” “Mission as Mediating Salvation,” “Mission as the Quest for Justice,” “Mission as Evangelism,” “Mission as Contextualization,” “Mission as Liberation,” “Mission as Inculturation,” “Mission as Common Witness,” “Mission as Ministry by the Whole People of God,” “Mission as Witness to People of Other Living Faiths,” “Mission as Theology,” “Mission as Action in Hope.”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이 저작의 “Chapter 12: Elements of an Emerging Ecumenical Missionary Paradigm,” 368-510를 보라.

¹⁹ Bosch, *Transforming Mission*, 519 (italics mine).

2. 첫 번째 “종의 노래”에 나타난 선교 개념: 이사야 42:1-9

2.1. 성경 본문의 분석

우리는 “이방의 빛”(a light to the nations)이라는 구절을 이사야서의 첫 번째 종의 노래(사 42:1-9)에서 찾을 수 있다(cf. 사 49:6; 51:4-5; 60:1). 이 본문의 분석 및 해석과 관련해서 학자들 사이에 가장 우선적인 논쟁점 가운데 하나는 과연 그러한 종의 노래들이 후대의 삽입인가, 아니면 본래적인가 하는 것이다. 한때, 뉘(Duhm)은 소위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들의 그 본래적 구성단위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이사야 42:1-4; 49:1-6; 50:4-9; 그리고 52:13-53:12.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종의 노래들을 그 언어적 독특성과 문학적 스타일의 차이때문에 이사야서 40-55의 본래적 문맥으로부터 떼어내어 이질적인 것으로 구별하고자 했다(i.e., 소위 “편집 비평”의 적용).

그러나 그러한 뉘의 견해는 다른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거부되었는데, 그것은 종의 노래들을 포함한 전체 본문에 있어 주제의 연속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²⁰ 블로허(H. Blocher)는 종의 노래들이 각기 따로 독립된 단위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²¹ 그러므로, 종의 노래들과 다른 부분들을 잇는 “연결고리”(connecting links)에 대한 브루스(F. F. Bruce)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블로허는 종의 노래들의 텍스트를 다음과 같은 문학적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사야 42:1-9(5-9); 49:1-13(7-13); 50:4-11(10,11); 52:13-53:12.²² 동일한 이유로 해서, 이 글에서는 이사야 42:1-9의 본문을

²⁰ 다음 문헌들을 참조하라: James D. Smart, *History and Theology in Second Isaia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5), 80-81; N. H. Snaith, “The Servant of the Lord in Deutero-Isaiah,” in *Studies in Old Testament Prophecy*, ed. H. H. Rowley (Edinburgh: T. & T. Clark, 1957), 187; 그리고 Hans M. Barstad, “The Future of the ‘Servant Songs,’” in *Language, Theology, and The Bible: Essays in Honor of James Barr*, eds., S. E. Balentine and J. Barton (Oxford: Clarendon Press, 1994), 261-70.

²¹ H. Blocher, *Songs of the Servan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1), 20.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취급하고자 하며, 또한 종의 노래들은 후대에 삽입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 문맥에서 분리할 수 없는 본래적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²³

2.2. “야웨의 종”의 정체성 문제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야웨의 종’(the Servant of Yahweh) (cf. “나의 종”)과 그의 독특한 선교적 사명,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그의 태도에 대한 간략한 묘사를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42:1ab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그의 종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종의 노래들에서 언급하는 이 “종”(the Servant)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노쓰(C. R. North)의 분석에 따르면, 성경해석 역사에 있어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 (1) “역사적-개인으로서의 해석”, (2) “신학적 해석”, (3) “집합적 해석”, 그리고 (4) “메시아적 해석.”²⁴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들의 유용성과 그 신학적 함축들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야웨의 종”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매력적인 접근법을 해석학적 도구로 고려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동적 접근법”(fluid approach)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야웨의 종’의 정체성을 구체화함에 있어 그러한 접근법

²² Blocher, *Songs of the Servant*, 20-21.

²³ 윌슨(A. Wilson)에 따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의 노래들은 그 문맥에서 분리 가능한 독립적인 신탁들이 아니라 전체 구성적 단위들을 이루는 하부 단위들로서 연속적으로 보아야 한다.” A. Wilson, *The Nations in Deutero-Isaiah: A Study on Composition and Structure* (Lewiston: Edwin Mellen Press, 1986), 315.

²⁴ Cf. C. 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A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192-219. 또한 다음의 문헌들을 보라: H. H. Rowley, *The Servant of the Lord and Other Essays on the Old Testament*, 2nd ed. (Oxford: Basil Blackwell, 1965); D. F. Payne, “Recent Trends in the Study of Isaiah 53,” *Irish Biblical Studies* 1 (1979): 3-18; C. G. Kruse, “The Servant Songs: Interpretative Trends since C. R. North,” *Studia Biblica et Theologica* 8 (1978): 3-27; 그리고 Robert R. Ellis, “The Remarkable Suffering Servant of Isaiah 40-55,”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34 (1991-92): 20-30.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의 개념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W. Zimmerli and J. Jeremias, *The Servant of God* (Naperville, IL: Alec R. Allenson, 1957).

을 먼저 델리취(F. Delitzsch)의 해석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는 종의 정체성을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로 파악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종은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이며,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의로운 남은 자들’이고, 마지막 종의 노래에서는 그 피라미드의 정점으로서 구원을 증재하는 ‘한 개인’으로 구체화되어진다.²⁵ 로울리(H. H. Rowley)도 다음과 같은 유사한 ‘유동적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즉,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종의 정체는 집합적 의미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며, 그들의 사명은 온 세상 나라들에게 참 종교의 빛, 곧 야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하나의 정화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핵심으로서의 남은 자들로 구체화 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완벽하게 성취할 한 개인으로 정체화 되는데,²⁶ 그는 곧 메시아이다.²⁷

이제 ‘야웨의 종’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 본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먼저 42:1ab의 텍스트를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הֵן עַבְדִּי אֲחִיזְבְּנִי בְּחַרְרֵי הַצָּהָר
נִבְשָׂי נַחְתִּי רַחֲמֵי עָלַי

(42:1ab)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²⁸

²⁵ Cf. F. Delitzsch, *Biblical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vol. 2, trans. J. S. Bank and J. Kennedy (Edinburgh: T & T Clark, 1980), 165.

²⁶ Rowley, *The Servant of Lord*, 53-54. 노쓰(North)도 동일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종의 개념화에 있어 일종의 유동성이 있다.”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215.

²⁷ 우리는 대체로 전체 구속사에서 ‘야웨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다음과 같이 역삼각 쌍꺾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전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the Old Israel) → 남은 자들 →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참 이스라엘) → 12 제자 → 초대 교회 → 전체 신약 교회(the New Israel).

²⁸ 그러나, 70인역(LXX)의 독법에 따르면,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고 있다: “보라, 야곱은 나의 종이며…이스라엘은 나의 택한 자라”(Behold, Jacob is my servant…Israel is my

오스왈트(John N. Oswalt)에 의하면, 이 독특한 “종”에 대한 위임 형식 문은 아브라함(창 26:24), 모세(출14:31), 사울(삼상 9:15-17), 그리고 다윗(삼하3:18)의 경우들과 아주 유사하며, 사실 이러한 형식은 고대 근동에서 왕의 위임 형식문으로써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된 형태의 바로 그것이다.²⁹ 그러므로 오스왈트는 이사야 11:9(cf. 16:5)와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이 종의 정체성이 “메시아적 인물”이라고 보았다.³⁰ 그러나 한손(Paul D. Hanson)의 견해에 따르면, 이 본문은 오히려 다음과 같은 이사야 41:8-10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8-10(cf. 43:10, 44:1, 3)의 본문에서, 야웨의 종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다. 그것은 비교된 두 본문에서 우리는 “나의 종”이라는 동일한 타이틀과 유사한 선택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형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¹ 그러므로, 첫 번째 종의 노래 본문 42:1a에서, 우리는 종의 정체를 잠정적으로 하나의 “집합적 인

chosen). 그러므로 여기에서 종은 이스라엘로 정체화 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Cf. John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Grand Rapids: Eerdmans, 1998), 107, n. 1. 스네이 쓰에 의하면, 그것은 옛 이스라엘(the old Israel)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the new Israel)을 의미한다. Cf. N. H. Snaith, “Isaiah 40-66: A Study of the Teaching of the Second Isaiah and Its Consequences,” in *Studies o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Isaiah*,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vol. 14 (Leiden: E. J. Brill, 1967), 180.

²⁹ Cf. John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Grand Rapids: Eerdmans, 1998), 109; C. Westermann, *Isaiah 40-66*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9), 93-94; 그리고 R. Schultz, “The King in the Book of Isaiah,” in *The Lord’s Anointed: Interpretation of Old Testament Messianic Texts*, eds., P. E. Satterthwaite et al.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141-65.

³⁰ Oswalt, *The Book of Isaiah*, 110.

³¹ Cf. Paul D. Hanson, *Isaiah 40-66*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9), 42. 엘리스(R. R. Ellis) 또한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음의 용어들, 즉 ‘servant... uphold... chosen’은 야웨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이사야 41:8-10의 언어들에 대한 반향이다. 이러한 언어적 연결(유사성)은 이 첫 번째 종의 노래가 그것의 전체 문맥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Ellis, “The Remarkable Suffering Servant of Isaiah 40-55,” 21.

격”(corporate personality)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수 있겠다.³²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집합적 인격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메시아적 개인으로서의 종에 대한 해석 두 가지를 서로 상보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스마트(James D. Smart)가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선지자는 현재의 경험적 이스라엘과 종말론적인 성취의 시점에서의 영광된 이스라엘로서의 두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하여 나아가며 또한 뒤돌아보는 관점을 동시에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³³

2.3. “야웨의 종”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

이 본문의 해석에 있어, 두 번째 논쟁점은 과연 야웨의 종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본문 이사야 42:1c-4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즉,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학자들의 논쟁의 핵심은 종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종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냐 하는 것이다. 먼저 관련 본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1c: He will bring forth justice to the nations (מִשְׁפָּט לְעַמִּים יוֹצֵא)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3c: He will faithfully bring forth justice (לְאֵמֶת יוֹצֵא מִשְׁפָּט)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4b: Until He has established justice in the earth (עַד יִשְׁׁטֵם מִשְׁפָּט אֶרֶץ)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상기 본문에 나타난 야웨의 종의 사명은 세상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공의”(justice, מִשְׁפָּט)를 “베풀며”(1c, 3c) “세우는”(4b) 것이다. 이와 같은 종의 사명과 관련하여 본문에서 세 번의 강조적 표현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공의”라는 말이다.³⁴

³² Cf. Rowley, *The Servant of the Lord and Other Essays on the Old Testament*, 51-52.

³³ Smart, *History and Theology in Second Isaiah*, 80.

마틴-아차드는 이러한 종의 사명과 관련하여, 미쉬파트(*mispat*, מִשְׁפָּט)라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1c를 “그는 나의 심판(judgment, verdict)을 이방 나라들에게 선포하리라”고 해석한다.³⁵ 이러한 그의 해석에 따르면, 종은 이방인들에게 참 종교를 전하는 것에 그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본질적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야웨 하나님에 의해 선포된 심판을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³⁶ 스나이쓰는 다음 같이 말함으로써 이러한 해석에 무게를 실어 주고 있다: “만일 이사야 선지자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민족적 선지자라면, 이 용어의 의미는…*엄한 보복으로서의 공의의 집행* (the execution of justice)을 의미할 뿐이다.”³⁷ 그러나 성경에서 공의(מִשְׁפָּט)라는 말은 그 의미에 있어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용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많은 학자들은 ‘엄한 심판’의 의미로서의 해석을 이 본문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한 전체적인 종의 노래들의 문맥적 상황에 부적절한 것으로 거부한다. 즉,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야웨의 종은 그의 선교적 사명을 아주 부드럽고 또한 신실하게 “진리” 안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의 인용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진다.

לֹא יִצְעַק וְלֹא יִשָּׂא וְלֹא יִשְׁמֹעַ בְּרוּן קוֹלוֹ: (42:2)

כִּנְהָר רִמְזִין לֹא יִשְׁבֹּד וּפְשִׁיקָה (42:3)

כִּדְהָ לֹא יִכְבֶּהָ לְאַחַת רִמְזִיא מוֹשְׁפֵט:

- (42: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42: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³⁴ 헨슨은 “*mispat*의 개념은 Second Isaiah의 메시지의 핵심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 Hanson, *Isaiah 40-66*, 42.

³⁵ Martin-Achard, *A Light to the Nations*, 28.

³⁶ Cf. Martin-Achard, *A Light to the Nations*, 26.

³⁷ Snaith, “The Servant of the Lord in Deutero-Isaiah,” 193 (italics mine).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위에 인용한 본문에서 우리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엄한 ‘응징’ 혹은 ‘보복’의 의미에 있어서 종이 수행할 법적인 심판의 개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42:4에서, “공의”(justice, צְדָקָה)는 “율법”(law, תּוֹרָה)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교훈, 훈련, 법” 혹은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미쉬파트(מִשְׁפָּט)는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 올바른 방법”,³⁸ “야웨의 가르침 혹은 진리”,³⁹ 혹은 “참된 종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cf. Volz, von Rad).⁴⁰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오스왈트는 야웨의 종이 세울 하나님의 미쉬파트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질서 인데, 곧 창조 세계가 창조자가 설계한 바에 따라 기능할 때 존재하는 것이라고 적절하게 말한다.⁴¹ 그것은 또한 “사회적 질서”도 포함하는 것이다.⁴² 따라서 야웨의 종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야웨의 계시, 그의 진리, 혹은 그의 구원적 심판의 중재자이며, 이것이 바로 그의 본질적인 선교적 사명이다.⁴³ 이러한 성경해석의 관점은, 이사야 53:11의 다음과 같은 구절의 언명과 잘 부합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

³⁸ John L. McKenzie, *Second Isaiah* (Garden City, N.Y.: Doubleday & Company, 1968), 37.

³⁹ Ellis, “The Remarkable Suffering Servant of Isaiah 40-55,” 21.

⁴⁰ 그러나 윌슨은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중간적 입장을 취한다: “이사야 42:1-4에서, 종이 이방 나라들에게 전할 *mispal*와 *tora*는 세계 역사 속에서 입증할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나타낸다. 이것은 시험적 의미에서 이방들에 대한 *mispal*의 성취이며(41:1), 또한 40:27에서 그들이 *mispal*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한 응답이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에 있어 이 심판은 완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그것은 ‘심들이 이 *tora*를 앙망하고 있기 때문이다(42:4). 따라서 *mispal*을 추상적으로 ‘진리’ 혹은 ‘참된 종교’로 치부하는 것은 아마도 실수를 범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것이 어떤 선교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과 평행을 이루는 *tora*는 Deutero-Isaiah의 또 다른 문맥들에서 어떤 ‘가르침’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에 뒤따르는 구원적 심판을 나타낸다. “A. Wilson, *The Nations in Deutero-Isaiah: A Study on Composition and Structure* (Lewinston: Edwin Mellen Press, 1986), 257.

⁴¹ Oswalt, *The Book of Isaiah*, 110.

⁴² Oswalt, *The Book of Isaiah*.

⁴³ McKenzie, *Second Isaiah*, 37.

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사야 52:7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위한 “복된 좋은 소식” 곧 “구원”이다.

מְשֻׁבְּרֵי שָׁלוֹם יְבִיאוּ
 בְּשִׁבְרֵי שָׁלוֹם יְבִיאוּ
 בְּשִׁבְרֵי שָׁלוֹם יְבִיאוּ
 בְּשִׁבְרֵי שָׁלוֹם יְבִיאוּ
 (52:7)

(52:7)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따라서 이것이 바로 42:4c에서 말하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the coastlands will wait expectantly for His law, וַיִּחְלוּ אִיִּים וְיִחְלוּ)하는 참된 이 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야웨의 종의 사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i.e., 섬들과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그것을 베풀어야 하고, 나아가 그것을 온 땅 위에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종은 야웨 하나님의 공의(מִשְׁפָּט)의 지식을 온 땅에 전하고 세우는 선교적 사명을 성취해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야웨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종의 사명에서, 우리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원심적’ 개념의 선교, 즉 ‘나아가는’(going out) 선교적 위임 명령을 분명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문 42:6b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의 사명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

אֲנִי יְהוָה קְרָאֲךָ בְּעֶלְמָךְ
 בְּעֶלְמָךְ יְהוָה קְרָאֲךָ לְבָרִית עִם לְאוּרִימִים
 (42:6)

(42: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본문에서, 종의 사명이 보다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으며, 그 핵심 구절은 “백성의 언약”(a covenant to the people, $\text{בְּרִית לְעַמּוּךָ}$)과 “이방의 빛”(a light to the nations, אֵשֶׁת לְאֻמִּים)이다. 그러나 이 구절들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또 다른 논쟁의 핵심 포인트이다. 먼저, 백성의 언약($\text{בְּרִית לְעַמּוּךָ}$)이라는 구절과 관련하여, 마틴-아차드는 ‘언약(berith)은 ‘기초,’ ‘건설,’ ‘확립’이라는 의미로 취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이 선포의 의미는 종이 재확립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거룩한 나라(the Holy Nation)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⁴⁴ 따라서 그는 이 본문에서 “am”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며, 또한 “berith ‘am”이라는 구절은 다시 일으킴 받을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라고 해석한다.⁴⁵ 동일한 의미에서, 오르린스키(H. M. Orlinsky)도 이사야 42:6과 49:8에서의 $\text{בְּרִית לְעַמּוּךָ}$ 이란 표현은 엄격하게 유대 민족주의의 한계 내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수혜자이며, 그러므로 ‘언약’의 목적은 곧 포로된 이스라엘의 해방이라고 한다.⁴⁶ 그러므로,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는 소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야웨의 종의 ‘선교적 사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⁴⁷

그러나, $\text{בְּרִית לְעַמּוּךָ}$ 이라는 구절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구절의 문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a covenant to (a) people, i.e., Israel)인가, 아니면 이방백성들을 포함하는 ‘모든 백성들에 대한 언약(a covenant to peoples, i.e., the nations or humanity)인가 하는 것이다.⁴⁸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몇몇 학자들은 בְּרִית 을 같은 구절에 있는

⁴⁴ Martin-Achard, *A Light to the Nations*, 27.

⁴⁵ Martin-Achard, *A Light to the Nations*, 27.

⁴⁶ H. M. Orlinsky, “‘A Light of Nations’ and ‘A Covenant of People,’” in *A Studies i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Isaiah*, VT Sup. 14 (Leiden: Brill, 1967), 107. 스네이츠는 이 입장을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문에서 ‘백성의 언약’이라는 구절은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루어질 것들이다.”(Snaith, “Isaiah 40-66,” 158).

⁴⁷ Snaith, “Isaiah 40-66,” 27-28.

궈와 대립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즉 단수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한다.⁴⁹ 그러나 한손의 해석에 따르면, 이 구절에서 궈(people)이 지시하는 것은 그것의 선행 구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all the inhabitants of the earth)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며, 또한 이러한 해석은 같은 구절에 있는 그것의 평행어인 궈(nations)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문장이 히브리어 구문법에 있어 동의어적 평행법(synonymous parallelism)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⁵⁰ 나이트(George A. F. Knight) 역시 이러한 독법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구절에서 “백성(people, 궈)은 반드시 모든 인류(all mankind)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 문장에서 ‘언약’과 ‘백성’의 구성관계는 뒤이어 나오는 ‘빛’과 ‘나라들’의 그것과 평행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⁵¹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해석이 이사야 42:1-4에 묘사된 야웨의 종의 보편적 선교적 사명과 더욱 잘 부합하는 것 같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스마트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인용할 만한

48 오스왈트에 의하면,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 “주석자들은 신학적으로 첨예하게 나뉘는데, 종을 하나의 개인으로 보는 신학자들은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하는 반면, 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는 신학자들은 ‘백성’을 인류 전체로 해석한다.” Oswalt, *The Book of Isaiah*, 117-18. 이에 더하여, 노쓰(North)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다: “(1) ‘언약-백성(Covenant-people)’, (2)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맺음[Covenant [-bond] of the people,’ i.e. of Israel), (3) ‘(이방)백성들의 언약-맺음[Covenant [-bond] of the peoples,’ i.e. of the nations), (4) ‘백성[들]의 광휘(Splendour of the people[s]).” C. 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132. 이 구절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하라: F. D. Lindsey, “The Call of the Servant in Isaiah 42:1-9,” *Bibliotheca Sacra* 139 (1982): 12-31; D. R. Hillers, “Berit ‘am: Emancipation of the Peopl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7 (1978): 175-82; 그리고 M. S. Smith, “Berit ‘am/Berit ‘olam: A New Proposal for the Crux of Isa. 42:6,”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0 (1981): 241-43.

49 드 보어(de Boer) 그리고 마틴-아차드와 나란히, 스페이스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 42:6에서 궈은 단수형이다…[이사야서에서] 단수형이 사용될 때는 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나, 복수형이 사용될 때는 인류, 더 일반적으로는 이방인들을 나타낸다.” (Snaith, “Isaiah 40-66,” 157).

50 Hanson, *Isaiah 40-66*, 46. 웨스트만(C. Westermann)에 의하면, “그러나 모든 편집자들이 (Marti, Kittel, Köhler, Volz and Muilenburg) 동의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5절에서 사용된 같은 단어인 ‘am이 인류 전체를 나타내듯이, 마찬가지로 6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쓰였음을 가정하거나 최소한 유사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 Westermann, *Isaiah 40-66*, 100.

51 George A. F. Knight, *Deutero-Isaiah: A Theological Commentary on Isaiah 40-55* (New York: Abingdon Press, 1965), 75-76.

가치가 있다.

[이 구절에서], “백성”은 전체 인류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이 인류를 위한 하나의 언약이라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 인류 사이에 언약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유일무이한 빛과 생명의 근원이 된 그 언약 관계는 이스라엘이라는 대리자(중재자)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 대하여 생명의 원천으로 확장된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의 해석에 있어 모든 편협성이 무너진다. 야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단지 그의 백성들이 언젠가는 모든 인류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을 그 언약 관계 속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의미에서만 이스라엘의 언약이 있음이 인식되어야 한다.⁵²

같은 본문에서, 평행 구절인 “이방의 빛”의 의미 또한 야웨의 종의 임무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교적 사명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초점이 된다. 또다시, 마틴-아차드의 견해에 의하면, 야웨의 종은 확실하게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선교적 사명과는 관계가 없다. 오히려 종의 빛이 비치는 것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방 나라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야웨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눈들을 눈부시게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⁵³ 드보어(de Boer)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단지 유대 민족의 구속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심지어 위대한 나라들, 왕들과 왕족들이 그것으로 인해 놀라게 되고 또한 그것을 위대한 구원으로서 우러러 보게 될 것임을 의미할 뿐이다.⁵⁴ 그러나, 나이트의 견해는 그와 같은 유대 민족주의적 해석과는 전혀 다르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이방의 빛”이다.

⁵² Smart, *History and Theology in Second Isaiah*, 85.

⁵³ Martin-Achard, *A Light to the Nations*, 28.

⁵⁴ Snaith, “Isaiah 40-66,” 156에서 재인용.

이스라엘은 단지 구속함을 받을 대상으로, 즉 단순히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에 의해 온 세상이 구원 받게 될 하나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선택함을 받은 것이다(cf. 눅 2:31-32).⁵⁵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종의 선교적 사명은 이방 나라들에게 ‘공의’(צדקה)와 ‘교훈’(תורה)을 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윌슨(Wilson)에 의하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는 두 평행 구절은 둘 다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매개하는 보편적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사명을 확립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⁵⁶ 동일한 의미에서, 에드워드 영(Edward J. Young) 또한 이 구절에서 빛은 구원을 나타내는 비유적 묘사라고 주장한다.⁵⁷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사야 42:6의 두 구절이 서로 결합되어 분명하게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너와 구원의 언약을 맺을 것이며 (즉, 구원은 그 언약 속에서 주어진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이방 나라들은 빛과 광명,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⁵⁸

다음으로, ‘이방의 빛’이라는 구절의 의미는 42:7에서 다음과 같이 더욱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다.

לִפְקֹד עֵינַיִם עֲרֹחַ לְרוּצִיָּא (42:7)
נִמְסָר אִסָּר נִמְצָח כְּלָא תִּשְׁבִּי הַטָּהֵר:

(42:7)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갠 자들을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들을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⁵⁵ George A. F. Knight, *Servant Theology: A Commentary on the Book of Isaiah 40:55* (Grand Rapids: Eerdmans, 1984), 48.

⁵⁶ Wilson, *The Nations in Deutero-Isaiah*, 262.

⁵⁷ Edward 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3 (Grand Rapids: Eerdmans, 1972), 121.

⁵⁸ Westermann, *Isaiah 40-66*, 100.

먼저, 몇몇 성경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소경’과 ‘간힌 자들’을 이방인들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본다.⁵⁹ 예를 들어, 오르린스키에 의하면, 이 구절은 포로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함에 다름 아니다.⁶⁰ 따라서, 스네이쓰는 종의 사명은 포로된 자들을 바빌론으로부터 풀려나게 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회복된 공동체, 곧 새로운 이스라엘(the New Israel)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사명은 바로 이것을 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주장한다.⁶¹ 그러나, 완전히 대립적인 해석으로, 우리는 그 ‘소경’과 ‘간힌 자들’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흑암에 앉아 ‘빛’을 앙망하는 이방 민족들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편협한 유대 민족주의적 해석은 이 전체 본문의 보편적 메시지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스마트의 해석에 의하면, 이곳과 또 다른 곳에서 말하는 소경됨과 간힌 상태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바깥에는 오직 죄인들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⁶²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어두운 감옥은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죄의 흑암과 속박”을 의미한다.⁶³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종의 선교적 사명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택정하여 세상에 대한 빛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을 중재하도록 하셨으며, 그럼으로써 다른 민족들에게 계몽과 해방을 가져다주도록 하셨습니다.”⁶⁴

⁵⁹ 예를 들어, 스네이쓰의 견해에 따르면, “42:7에서 이방 민족을 의미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소경’(v. 7)은 바벨론에 포로됨을 의미한다. 소경됨과 옥에 갇힘은 이러한 포로됨에 대한 흔한 은유들(metaphors)이다” (Snaith, “Isaiah 40-66,” 158). 노스 역시 동일한 견해를 주장한다: “이 예언이 이방인들을 나타낸다는 아무런 보증이 없다. 그러므로 7절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묘사하는 것 같다.” C. R. North,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134.

⁶⁰ Orlinsky, “‘A Light of Nations’ and ‘A Covenant of People,’” 103.

⁶¹ Snaith, “Isaiah 40-66,” 158.

⁶² Smart, *History and Theology in Second Isaiah*, 87.

⁶³ Oswalt, *The Book of Isaiah*, 118.

⁶⁴ Westermann, *Isaiah 40-66*, 100-101.

우리는 이사야 49:6의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다시 나타나는 ‘이방의 빛’에서 종의 선교적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וְאֵנִי נִקְלָה מִיְהוָה לִי עֶבֶד
 לְהָקִים אֶת־שִׁבְטִי עַל־בְּנֵי־יִשְׂרָאֵל
 לְהָשִׁיב וּלְחַזְקָהּ לְאֹר גּוֹיִם לְלוֹחֵם
 לְשׁוֹמְרֵי עֲרֻקְתָּהּ הָאֲרָץ:

(49:6)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킬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상기 본문에 따르면, 종의 사명은 이중적인 임무이다. 먼저, 종은 야곱 지파를 일으켜 세워야 하고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사명에 비하면 “오히려 너무나 작은 일”이다. 오히려 그의 더 큰 막중한 사명은 “이방의 빛이 되어 야웨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גּוֹיִם לְלוֹחֵם לְשׁוֹמְרֵי עֲרֻקְתָּהּ הָאֲרָץ)이다(v. 6). 그러나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 몇몇 학자들은 극도의 유대 민족주의적 관점을 고수한다. 예를 들어, 스네이쓰에 따르면, 종의 사명은 계속하여 그 자신의 백성, 곧 야곱-이스라엘에 국한되며, 그럼으로써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됨으로부터 구원과 회복이 곧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단지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선지자 이사야의 관심이기 때문이다.⁶⁵ 마찬가지로, 오르린스키 역시 이러한 유대 민족주의적 해석을 다음과 같이 더욱 분명하게 주장한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승리와 회복

⁶⁵ Snaith, “The Servant of the Lord in Deutero-Isaiah,” 198.

으로 눈부시게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유일무이한 빛, 곧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 백성을 눈이 부시도록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장엄함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써만 세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⁶⁶

그러나 본문의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면, 우리는 강조의 초점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후자, 즉 “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 것”에 놓여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더군다나, 본문은 “빛”이 바로 “구원”을 의미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⁶⁷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오스왈트는 다음과 같이 바르게 본문을 관찰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그의 종에게는 충분하게 큰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존재, 소명, 그리고 준비는 보다 더 큰 사명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구원이다(saving the world)*⁶⁸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그의 종에게는 “더 새롭고 더욱 막중한” 선교적 사명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⁶⁹ 그리고 이러한 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선포된 종의 선교적 사명은 이미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주어진 다음과 같은

⁶⁶ Orlinsky, “‘A Light of Nations’ and ‘A Covenant of People,’” 117.

⁶⁷ 이러한 의미에서, 린드세이(F. D. Lindsey)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사야 51:4-6 과 59:9에서 ‘빛’이 ‘공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빛’은 ‘공의’가 수행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49:6 은 ‘빛’이 사실상 ‘구원’의 동의어임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F. D. Lindsey, “The Call of the Servant in Isaiah 42:1-9,” *Bibliotheca Sacra* 139 (1982): 25.

⁶⁸ Oswalt, *The Book of Isaiah*, 293 (italics mine). 월슨에 의하면, “여기에서 종은 다시 이스라엘로 이해되어지며, 그들은 포로됨의 침묵의 고난과 또한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계시를 통하여 이중으로 열방을 위한 제사장적 속죄를 수행한다.” Wilson, *The Nations in Deutero-Isaiah*, 316.

⁶⁹ Westermann, *Isaiah 40-66*, 212.

종의 사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설명이다. 즉, 그는 열방에 야웨의 עֲבָדָה 를 베풀고 땅 위에 그것을 세워야 하는데 (42:1-4), 그 이유는 그가 곧 ‘백성의 언약(עֲבָדָה לַיהוָה)’이며 또한 ‘이방의 빛(אֵשׁ תִּשְׂרָף)’이기 때문이다(42:6).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들에서 분명하게 야웨의 종의 사명으로써 ‘선교적 위임 명령’을 찾을 수 있다. 더군다나, 그것은 단순히 소위 말하는 ‘구심적’ 개념의 선교가 아니라,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서 비록 그것의 완전한 성취는 비록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본래적으로 ‘원심적’ 개념의 선교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구약의 ‘구심적’ 선교와 신약의 ‘원심적’ 선교 개념에 대한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서의 이분법적인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정도의 문제이며 그 점진적인 성취 단계를 보여 줄 뿐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구속사의 진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i.e., a continuity within a distinction).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헤드룬드는 “새 것(신약)은 옛 것(구약)으로부터 자라 나온다(the New grows out of the Old)”고 말한다.⁷⁰ 이와 같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주어진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문법적-역사적 의미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가 말하는 통전적인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성경해석 원리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Sola Scriptura*(오직 성경으로)와 *Tota Scriptura*(전체 성경으로)의 원리이다.

⁷⁰ Hedlund,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the World*, 151.

3. 선교의 기초와 목적

3.1. 선교의 기초: “하나님의 주권”(the Sovereignty of God)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분석을 통하여 야웨의 종의 사명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써 그 본질에 있어 선교적 사명임을 살펴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צדקה)와 ‘교훈’(מִדְּבָר, 訓)을 이방 나라들에게 베풀며 (42:1-4),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전할 것이다(49:6). 그러나 그러한 종의 선교적 사명의 기초는 과연 무엇이며, 그 중국적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이사야 42:8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각각 ‘하나님의 주권’(the sovereignty of God)과 ‘하나님의 영광’(the glory of God)이다.

אֲנִי יְהוָה הוּא שְׁמִי וְכְבוֹדִי (42:8)
 לֹא אֶדְוָה לְאֵלֶּיךָ מִתְהַלְּחֵי לְפָסְלִים:

(42:8)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상기 본문에서, 먼저 종을 택하여 세우고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야웨다!”(I am Yahweh, אֲנִי יְהוָה)라고 선포하신다. “야웨”(Yahweh, אֲנִי)는 그의 종 모세에게 특별히 계시하셨던 언약의 이름이며, 바로 하나님의 성호로서 고유한 이름이다(cf. 출 3:13-15). “이것은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로 오시는 인격적이고, 불변하시며, 피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실재를 요약하는 것이다.”⁷¹ 따라서 오직 야웨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렘 10:10).⁷² 이와 같

⁷¹ Oswalt, *The Book of Isaiah*, 119.

⁷² 하나님의 자기 계시(self-revelation) 혹은 자기 정체화(self-identification)로서의 자신의 이

이,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는 오직 야웨만이 거짓된 신들, 곧 우상들과 구별되는 참된 하나님이니라는 것이다.⁷³ 그러나, 먼저 언약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이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모든 이방 나라들과도 공유되어야만 한다.⁷⁴ 즉, 유일하게 영원토록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야웨 하나님은 온 세계만방 모든 민족들에게, 곧 땅 끝까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알려져야 하는데, 그것은 “야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אֲנִי יְהוָה וְאֵין עִד וְלֹא יֵלֹאִים אֱלֹהִים (45:5)

אֲנִי יְהוָה וְלֹא יֵשְׁתֵּנִי:

לִמְעַן יֵדַע מְנוּחַת עַמּוֹתָא (45:6)

וּמְנוּחָהּ כִּי אֵפֶשׂ בְּלִעְדֵי אֲנִי יְהוָה וְאֵין עִד:

(45:5)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찌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45:6)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온 세상은 이 유일무이한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만 한다. 이 참된 하나님, 곧 야웨의 미쉬파트(משפט)와 토라(תורה)를 땅 끝까지 베풀고 전하여 알게 하는 것이 곧 종의 선교적 사명이다. 그러므로 이사

름에 대한 계시는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출 3:14).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YHWH 언명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와 삼위일체론적 해석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Eunsoo Kim, “Time, Eternity, and the Trinity: A Trinitarian Analogical Understanding of Time and Eternity” (Ph. 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6), 366-77.

⁷³ Cf. W. G. Strickland, “Isaiah, Jonah, and Religious Pluralism,” *Bibliotheca Sacra* 153 (1996): 29.

⁷⁴ 블렌킨썃(J. Blenkinsopp)이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포로기와 또 그 이후에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세상의 다른 이방 민족들에 전하고 나누어 주었다. J. Blenkinsopp, “Second Isaiah-Prophet of Universalis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1 (1988): 83을 보라.

야 선지자를 통하여 거듭 주어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YHWH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 즉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어야 한다.”⁷⁵ 그러나, 도대체 왜 그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먼저 야웨 하나님만이 온 세상, 곧 우주 만물의 창조자(the Creator)이시기 때문이다(사 40:21-26). 그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신다. “그러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사40:25). 그러므로 이제 그 야웨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다:

כְּדַאֲבָד הָאֵל יְהוָה בֹּרֵא

הַשָּׁמַיִם וְיִטְוֶהֶם רַקֵּעַ הָאָרֶץ וְהַמַּצְאִיחַ תֵּן
נְשָׂמָה לָעָם עָלֶיהָ וְרוּחַ לְהַלְכִים בָּהּ:

(42:5) 하나님 여호와와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나니

그의 종을 택하여 불러 세우시고, 이제 그로 하여금 자신의 מְשִׁיבָה와 רוּחַ를 전하도록 명령하시는 그는 다름아닌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 YHWH, 곧 “창조자 하나님”(the Creator)이다. 야웨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시며 또한 전적 주권으로 통치하신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거듭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되고 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사 45:7). 이에 더하여,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으시며(cf. 창 2:7),⁷⁶ 그리고 그의 영(the Spirit of life)을 땅

⁷⁵ A. Gelston, “Universalism in Second Isaiah,”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43 (1992): 377.

⁷⁶ 참고로, 와이브레이(R. N. Whybray)는 ‘am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민족이나 나라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특별히’(most unusually) 전체로서의 ‘인류’의 의미로 사

위에 행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cf. 요엘서 2:28).

이에 더하여, 야웨 하나님께서는 홀로 오직 ‘참된 창조자’(the true Creator)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홀로 또한 ‘참된 구속자’(the true Redeemer)이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 나라”(사 43:15);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사 43:14); 그러므로, “나 곧 나는 여호와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와 나의 말이니라”(사 43:11-12). 이와 같이, ‘참된 창조자’ 그리고 동시에 ‘참된 구속자’로서 참 하나님이신 야웨 하나님만이 오직 ‘참된 구원’(the true Salvation)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그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אֲנִי יְהוָה קְרֹאֲךָ בְּעַד וְאֲחֻזְךָ (42:6)

בְּיָדְךָ וְאֲחֻזְךָ וְאֲחֻזְךָ לְבָרִית עִם לְאוּרְ נְזִים:

לְפָנַי עֵינַימוּ עוֹרוֹת לְוֹצִיא (42:7)

מִמְסַחֵר אֶסֶד מִבַּיִת כֻּלָּא יֵשְׁבֵי הַשָּׂדֶה:

- (42: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42:7)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제 다시, 그의 종을 택하여 불러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מַשְׁפָּט과 חַיִּים를 전하도록 명령하시는 그는 다름아닌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 야웨(YHWH), 곧 “구속자 하나님”(the Redeemer)이시다. 야웨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종을 불러 세우시고, 또한 그

용되어졌다고 한다. R. N. Whybray, *Isaiah 40-66* (London: Oliphants, 1975), 74. 또한 Oswalt, *The Book of Isaiah*, 117을 보라.

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의 종를 강하게 붙드시며 도우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종의 선교적 사명은 곧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선교는 창조자이시며 동시에 구속자이신 야웨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다. 다음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אַנְכִי יְהוָה וְאֵין מַבְלַעַדַי (43:11)
 מוֹשִׁיעַ:

(43: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의 구속역사 속에서, 창조자이신 야웨께서는 오직 그만이 홀로 참된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러므로 홀로 참된 구원자이심을 다음과 같은 강조적 언명으로 계시하신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I, I am Yahweh, אַנְכִי יְהוָה). 여기에서, 독립 대명사를 두 번씩이나 사용한 것은,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야웨 하나님의 “절대 주권”(the absolute sovereignty)을 강조함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there is no savior besides Me, אַנְכִי יְהוָה מוֹשִׁיעַ).⁷⁷

침머리(W. Zimmerli)에 의하면, “이러한 야웨의 자기언명, ‘ny yhwh 는 그것의 신실함을 보증한다. 야웨 하나님의 자기 이름에 대한 계시는 곧 야웨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다. 이제 그는 그의 백성에게로 오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언약으로 인하여 신실하게 그들에게 머무실 것이다.”⁷⁸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종의 선교적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이 온 땅에 알려지고, 그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에 실현될 것이다.⁷⁹ 그러므로, 다른 거짓 우상들에게 의지하는 모든 악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성경이 선포하는 바와 같이, “조작한 우상들을 의뢰하여 너

⁷⁷ Cf. Oswalt, *The Book of Isaiah*, 148.

⁷⁸ W. Zimmerli, *I am Yahweh*, trans. D. W. Stott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11.

⁷⁹ R. Davidson, “Universalism in Second Isaia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6 (1963): 185.

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사 42:17). 아무런 권세가 없고 무가치한 우상들은 전혀 신이 아니며, 단지 부어 만든 상들(images)인 그것들은 단지 “바람이요 허탄한 것”일 따름이다(사 41:29). 오직 창조자이시요 구원자이신 야웨만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이러한 진리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다시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노라”(사 44:6, cf. 41:4).

3.2. 선교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the Glory of God)

보냄을 받은 야웨의 종은 자기 자신이나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 자신을 종으로 선택했으며, 또한 그의 영으로 능력을 덧입히시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cf. 사42:1).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선교적 위임 명령은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야웨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의 종은 이 하나님의 **כבוד**를 이방 나라들에게 베풀 것이다. 그러므로 종의 선교적 사명의 궁극적 목적은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to glorify God)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the glory of God),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어진 신탁의 결론이며 궁극적인 목적이다(42:1-9).⁸⁰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선포되고 있다.

וְכַבְּדִי לְאֵלֹהֵי אֲרָצוֹת וְהִדְלִי לְכַסְלִים: (42:8b)

(42:8b)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 하리라

이러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언명에서 강조된 표현으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⁸⁰ Cf. Westermann, *Isaiah 40-66*, 101.

לִמְעַנִּי לִמְעַנִּי אֱנֶשֶׁה כִּי אֵדָד (48:11)

חָדַל וּכְבוֹדִי לְאֵדָד לְאֵתָּהּ:

(48:11)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 하리라

모든 영광은 오직 참된 하나님, 야웨(YHWH), 그분에게만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반드시 영화롭게 되셔야만 한다. 그분 홀로 예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것은 그분 홀로 온 우주에서 참으로 거룩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지요, 그 본질과 본성에 있어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이다.⁸¹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שִׁירוּ לַיהוָה שִׁיר הַדָּשׁ הַחֲדָשׁ (42:10)

מִקְדָּשׁ הָאֵרֶץ יִזְכְּרוּ הָיָם וּגְבֹלֹת אֲיִם וְשִׁבְחֵיהֶם:

(42:10) 향배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교의 본질은 참된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야웨 하나님께 대한 찬양, 즉 “송영”(doxology)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찬양의 새 노래는 바다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모든 섬들과 촌락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여 온 땅과 땅 끝으로부터 울려 퍼져야 할 것이다 (cf. 사 42:10-12). 이와 같이 선교는 참 하나님,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야웨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그럼으로써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유일

⁸¹ Oswalt, *The Book of Isaiah*, 270.

하신 참된 하나님을 알고, 야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민족들로 만드는 것이다. 야웨 하나님은 오직 그의 백성들의 찬양 속에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부를 “새 노래”는 다름 아니라 바로 ‘당신이 바로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야웨이시며, 다른 이가 없나니, 곧 당신 외에 참 하나님이 없노라’고 찬양하는 것이다(cf. 45:5).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파이프(J. Piper)는 올바르게 선교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에너지이며 목표이다. 찬양이 선교의 목적인 이유는 단순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이방 나라들에게 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안에 거하는 그의 백성들의 기쁨이다.”⁸² 이와 같이, 땅 끝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שָׁמַיְא*와 *אֲרֶץ*가 반드시 그의 종의 사명 그리고 그의 선교적 사역을 통하여 땅 끝까지 전해져야만 한다. 그리고 바로 그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사 40:5). 심지어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곧 하늘과 땅,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이 창조하신 온 우주로 확대되어질 것이다(사 49:13; cf. 42:10-13; 44:23; 45:8; 52:8-9; 55:12-13, 그리고 사 60-66장을 보라).

רַבֵּי שָׁמַיִם וְגַלְיָ אֲרֶץ וּפְצוּוּ הָרִים הַהֵן (49:13a)

(49:13a)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⁸² J. Piper, *Let the Nations Be Glad!: The Supremacy of God in Miss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11.

4. “이전의 일들”(the former things)과 “새 일들”(the new things)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어진 이 신탁은(사 42:1-9) 야웨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the new things)에 대한 선언으로 끝나고 있다(42:9). 또한 이와 유사한 본문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 41:21-29, 43:16-19, 44:6-8, 45:9-13, 45:20-21, 46:9-11, 그리고 48:3-11.⁸³

הַרְאֵנִי הַחֲדָשִׁים הַלְהִיבֵנִי הַקְּדָמִים אֲנִי (42:9)

כִּי־בָרָא הַמַּלְאָכִים אֲשֶׁר־עָשָׂה אֲרָמָם:

(42:9) Behold, *the former things* have come to pass,
Now I declare *new things*;
Before they spring forth I proclaim them to you.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노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전의 일들’(the former things, הַקְּדָמִים)과 ‘새로운 일들’(the new things, הַחֲדָשִׁים)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쓰의 해석에 의하면, ‘이전 것들’(הַקְּדָמִים)은 고레스왕(Cyrus)의 초기 승리를 의미하고, ‘새 일들’(הַחֲדָשִׁים)은 바벨론으로부터의 새로운 탈출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한다(cf. 사 43:18).⁸⁴ 그러나, 스마트는 이 두 가지 일들 사이에 어떤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말하기를, 이전 것들과 새로운 일들은 단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연속적인 하나의 계획과

⁸³ Cf. C. R. North, “The ‘Former Things’ and the ‘New Things’ in Deutero-Isaiah,” in *Studies in Old Testament Prophecy*, ed., H. H. Rowley (Edinburgh: T. & T. Clark, 1957), 111-26.

⁸⁴ North, 126. 와이브레이 또한 이것은 “바벨론의 정복과 포로들의 석방”을 의미 한다고 봄으로써 동일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Whybray, *Isaiah* 40-66, 76. 그리고 H. C. Leupold, *Exposition of Isaiah*, vol. II, *Chapters 40-66* (Grand Rapids: Baker Book, 1971), 66을 참조하라.

목적을 이루어 가는 두 단계에 불과하다고 본다.⁸⁵

그러나 본문의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그 차이점이 분명하고, 또한 그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새 일들”에 놓여 있음이 확실하다: “보라, 이 전 것들이 지나갔으니, 이제 내가 새 일을 선언 하노라!” 그러나 논쟁의 초점은 이 두 가지 일들이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먼저, 이 “새로운 일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단은 그럴 수도 있다는 본문에 대한 해석의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만일 이사야 42:1-9의 전체 본문이 하나의 의미 통합체로서의 단단하게 구성된 문학적 단위(a concrete literary unit)라고 본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롭게 선포된 종의 “선교적 사명”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보다 나은 해석일 것이다. 에드워드 영(Edward J. Young)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전의 것들은 아마도 이미 선포된 예언들일 것이다. 만일 그러하다면, 이전 것들은 초기의 예언들을 가르키는 것이고, 새 일들은 종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 일들은 사람들이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며 그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다.⁸⁶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새로운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는 아직 불명료함이 남아있다. 따라서 그 ‘새로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전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사실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강제로 이방 나라로 끌려가고,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짐을 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 또한 그 언약에 따른 사명, 즉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그들의 실패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전의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⁸⁵ Smart, *History and Theology in Second Isaiah*, 87.

⁸⁶ Young, *The Book of Isaiah*, 123-24.

역사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 하나의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하여,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언약 (the Abrahamic covenant)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재갱신 되어지는 모든 언약들에 대하여 하나의 ‘근원적 언약(a root-covenant) 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모든 언약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 언약’을 창세기 12:1-3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וְאֵשֶׁתְּ לִנְיָ יִדְוֹל וְאַבְרָהָם (Gen. 12:2)

וְאֵתְּ לִנְיָ יִדְוֹל וְאֵתְּ לִנְיָ יִדְוֹל וְאֵתְּ לִנְיָ יִדְוֹל

וְאֵתְּ לִנְיָ יִדְוֹל וְאֵתְּ לִנְיָ יִדְוֹל (Gen. 12:3)

אֵתְּ לִנְיָ יִדְוֹל וְאֵתְּ לִנְיָ יִדְוֹל וְאֵתְּ לִנְיָ יִדְוֹל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위에 인용한 본문의 내용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주어진 사증적 약속은 “큰 민족이 되게함, 창대한 이름, 신적 보호, 그리고 축복의 중재자”인데, 그 핵심은 “축복에 대한 약속”이다.⁸⁷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리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자신이 축복의 근원으로서 하나의 “축복”이 되게 하셨다. 그 핵심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두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위대한

⁸⁷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Series, vol. I (Waco, TX: Word Book Publisher, 1987), 275.

민족, 복을 주심, 창대한 이름-이 모두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은 단순한 축복의 수혜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축복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그러한 축복의 중개자(transmitter)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⁸⁸ 그는 “땅의 모든 족속들”을 위하여 축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과 언약에서 계시된 이방 나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윌터 카이저에 의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곧 그 시작으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선교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진리의 통로가 되어져야만 했다는 것이다.⁸⁹ 그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 메시지와 내용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줄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뒤로 움츠러 드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에 대하여 악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야만 했다.⁹⁰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출애굽기 19:5-6에 있는 모세언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들의 선조들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cf. 출 2:24; 3:15-17; 6:5-8). 그러므로 모세언약은 하나의 전혀 새로운 언약 관계의 창설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확장임과 동시에 그것의 논리적인 결과일 뿐이다.⁹¹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곧 출애굽 사건은 그들의 선조들과

⁸⁸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Grand Rapids: Eerdmans, 1990), 373.

⁸⁹ Kaiser, “Israel’s Missionary Call,” 28.

⁹⁰ Kaiser, “Israel’s Missionary Call,” 28.

⁹¹ Ronald F. Youngblood, *Exodus* (Chicago: Moody Press, 1983), 92.

맺은 하나님의 그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성취인 것이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주어진 모세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וַתֵּחַד אֱלֹהֵינוּ תְּשָׁמְעוּ בְּקוֹלִי
 וְתִשְׁמְעוּ אֶת־בְּרִיתִי וְהָיִיתֶם לִי כְּגֹלָה
 מִקְּלָה־עַמִּים כִּי־לֹא־אֶרְוֶן:

וְאַתֶּם הָיוּ לִי מִגְּלַת כְּתוּבִים
 וְהָיָה קָדוֹשׁ אֱלֹהֵי הַתְּהוֹמִים אֲשֶׁר־דִּבַּר אֵלַי בְּהָרֶה:

- (출 19: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 (출 19:6)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상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삼중적인 역할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이 가지는 가치는 하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놓여있다. 월터 카이저에 의하면, “제사장 나라로써 그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증개하여야만 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써 이스라엘은 언약관계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열국에 대하여 감당해야 할 이중적인 역할이다.”⁹² 이와 같이, 모세언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야웨 하나님의 종된 백성으로써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선교적 역할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언약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에 증개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창 12:1-3).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왕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선

⁹² Kaiser, “Israel’s Missionary Call,” 30.

교적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여야만 했는데, 그것은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었다(출 19:4-6).⁹³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분명하게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언약 관계 속에서 받은 그와 같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선교적 사명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강제로 그들을 이방나라로 끌어가게 하셨고, 또 열방 가운데 그들을 뿔뿔이 흩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이전의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이전의 일들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곧 그의 종의 선교적 사명을 통하여 그가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본문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살펴본 바와 같이, 야웨 하나님의 미쉬파트(*משפט*)와 구원을 그의 택한 자, 그의 종을 통하여 이방 나라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야웨의 종은 ‘백성의 언약’임과 동시에 ‘이방의 빛’이며, 그는 곧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수행할 하나님의 선교사이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어지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와 신약교회 시대에 이와 같이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디아스포라(Diaspora)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사실은 이러한 역사적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나오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이 감당해야만 했었던 선교적 사명의 구체적인 의미를, 특별히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들과 관련 본문들을 분석함으로써 살펴보았다. 특별히 개혁주의 입장에서 선교와 관련한 성경적 개념 혹은 패러다임을 찾기 위한 이 분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

⁹³ A. H. McNeile, *The Book of Exodus*. Westminster Commentaries (London: Methuen, 1931), 111.

하였는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먼저,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였던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들”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분명한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야웨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 하나님의 공의(*צדקה*)를 베풀고 또한 교훈(*חן*)을 전해야만 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그것은 바로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전”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실패하였던 “야웨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롭게 하시려는 그 “새로운 일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름 받은 하나님의 “선교사”들이다.

(2) 그러한 종의 선교적 사명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주셨던 것으로써 소위 “원심적” 선교 개념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약의 선교개념은 “원심적”이고, 구약의 그것은 “구심적”이라고 주장하는 대립적인 이분법적 견해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비록,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온전히 수행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원심적’ 선교가 어떤 새롭고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재된 본질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적 선교 이해가 바로 성경에 기초한 개혁주의적인 선교 이해일 것이다. 선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이다. 이를 위해 성부께서는 성자를 보내시고, 또 성자께서는 성령을 파송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그의 택한 백성들을 보내시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하나의 이중적인 사명이 존재한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러한 언약의 본질을 바로 이해한다면,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편협한 유대 민족주의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e.g., Martin-Achard, Snaith, Orlinsky). 하나님 자신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심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해졌다.

(4) 그러한 종의 선교의 본질적 기초는 오직 홀로 참된 하나님, 창조자 이시며 또한 구속자이신 야웨 하나님의 “절대 주권”(the sovereignty of God)이다. 선교는 바로 이 성경적 진리를 모든 이방 나라들,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함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으로서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the Glory of God)이다. 선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참으로 살아계신 야웨 하나님께서 “땅 끝으로부터” 찬양 받으시게 함으로서, 그를 영화롭게 함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송영”(doxology)이다. 이러한 성경적인 선교의 본질, 그 기초와 목적에 대한 구속사적 이해는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Soli Deo Gloria)을 강조하는 개혁신의 신앙과 신학 이해의 총체적 본질과 동일함이 또한 분명해 졌다.

(5) 성경이 말하는 언약에 기초한 구속사적 선교 이해에 대한 지금까지의 간략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현재 포스트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등의 다양하고도 심각한 도전들로 말미암아 일종의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 기독교 선교학에 대하여(이러한 상황은 비단 선교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성경 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에 이르기까지 신학 전반에 걸친 위기이다), 성경적 개혁신의 입장에서 우리는 선교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 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선교는 땅 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창조자시요 구속자이신 야웨 하나님(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함이며, 또한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나라들에 주신 삼위일체 하나

님의 축복이며 구원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비롯하여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하나님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가지며, 모든 기독교인들은 “세상 가운데”로 파송함을 받은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선교적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가 급격하게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고 있고 각 나라마다 세계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world-wide globalization), 또한 전례없이 활발한 인적 교류의 확대 로 각기 다민족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은 성경적인 “이방 나라들”의 개념을 단순히 국경과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적극적인 의미로 이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기독교 선교학은 창 1:28의 “문화 대명령”(cultural mandate)과 마 28:19-20(cf. 행 1:8)의 “선교 대명령”(missionary mandate)을 통합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혁주의적 영역 주권이론에 따라, 선교의 새로운 전선은 기존의 국경과 민족의 개념에 더하여 정치, 외교,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철학과 사상, 과학과 기술, 생태 환경, 기업 비즈니스 등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또한 그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포진하고 있는 소위 “이방 영역들”에 더욱 적극적이며 창조적으로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nderson, B. W. "Exodus Typology in Second Isaiah." In *Israel's Prophetic Heritage*. (Eds.) B. W. Anderson and W. Harrels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2: 177-95.
- Barstad, Hans M. "The Future of the 'Servant Songs'." In *Language, Theology, and the Bible: Essays in Honor of James Barr*. (Eds.) S. E. Balentine and J. Barton. Oxford: Clarendon Press, 1994: 261-70.
- Beuken, W. A. M. "MISPAT: The First Servant Song and Its Context." *Vestua Testamentum* 22 (1972): 1-30.
- Blauw, J. *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 New York: McGraw-Hill Book, 1962.
- Blenkinsopp, J. "Second Isaiah—Prophet of Universalism."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41 (1988): 83-103.
- Blocher, H. *Songs of the Servan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1.
- Bosch, David J.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 Chavasse, C. "The Suffering Servant and Moses." *Church Quarterly Review* 165 (1964): 152-63.
- Davidson, R. "Universalism in Second Isaia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6 (1963): 166-85.
- Davies, Graham I. "The Destiny of the Nations in the Book of Isaiah." In *The Book of Isaiah*. (Ed.) J. Vermeylen.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89: 93-120.

- Delitzsch, F. *Biblical Commentary on the Prophecies of Isaiah*. Vol. II. Trans. by J. S. Bank and J. Kennedy. Edinburgh: T. & T. Clark, 1980.
- Dumbrell, William J. "The Purpose of the Book of Isaiah." *Tyndale Bulletin* 36 (1985): 111-28.
- Ellis, Robert R. "The Remarkable Suffering Servant of Isaiah 40-55."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34 (1991-92): 20-30.
- Gelston, A. "Universalism in Second Isaiah."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43 (1992): 377-98.
- _____. "The Missionary Message of Second Isaiah."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18 (1965): 308-18.
- Glover, Robert H. *The Bible Basis of Missions*. Chicago: Moody Press, 1946.
- Hahn, F. *Mission in the New Testament*. Trans. by F. Clarke, London: SCM, 1965.
-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Grand Rapids: Eerdmans, 1990.
- Hanson, Paul D. *Isaiah 40-66*.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9.
- Hedlund, Roger E.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the World: A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1991.
- Hillers, D. R. "Berit 'am: Emancipation of the Peopl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7 (1978): 175-82.
- Kaiser, Walter C. "Israel's Missionary Call." 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Reader*. (Eds.) R. D. Winter and S. C. Hawthorn.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81: 25-34.
- Kane, J. H.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Books, 1976.
- _____. *The Christian World Mission: Today and Tomorrow*. Grand Rapids: Baker Book, 1981.

- Kim, Eunsoo. "Time, Eternity, and the Trinity: A Trinitarian Analogical Understanding of Time and Eternity." Ph. 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06.
- Knight, George A. F. *Deutero-Isaiah: A Theological Commentary on Isaiah 40-55*. New York: Abingdon Press, 1965.
- _____. *Servant Theology: A Commentary on the Book of Isaiah 40:55*. Grand Rapids: Eerdmans, 1984.
- Kruse, C. G. "The Servant Songs: Interpretative Trends since C. R. North." *Studia Biblica et Theologica* 8 (1978): 3-27.
- Leupold, H. C. *Exposition of Isaiah*. Vol. II: *Chapters 40-66*. Grand Rapids: Baker Book, 1971.
- Lindsay, F. Duane. "The Call of the Servant in Isaiah 42:1-9." *Bibliotheca Sacra* 139 (1982): 12-31.
- MacRae, A. A. "The Servant of the Lord in Isaiah." *Bibliotheca Sacra* 121 (1964): 125-32, 218-27.
- Martin-Achard, R. *A Light to the Nations: A Study of the Old Testament Conception of Israel's Mission to the World*. Trans. by John P. Smith. Edinburgh: Oliver and Boyd, 1962.
- May, H. G. "The Righteous Servant in Second Isaiah's Song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66 (1955): 236-44.
- McKenzie, John L. *Second Isaiah*. Garden City, N.Y.: Doubleday, 1968.
- McNeile, A. H. *The Book of Exodus*. *Westminster Commentaries*. London: Methuen, 1931.
- North, C. R. *The Suffering Servant in Deutero-Isaiah: An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 _____. "The 'Former Things' and the 'New Things' in Deutero-Isaiah." In *Studies in Old Testament Prophecy*. (Ed.) H. H. Rowley. Edinburgh:

- T. & T. Clark, 1957: 111-26.
- Ogden, Graham S. "The Cyrus Song [Isaiah 44:24 - 45:13] and Moses: Some Implications for Mission." *Southeast Asia Journal of Theology* 18 (1977): 41-45.
- Orlinsky, H. "A Light of Nations' and 'A Covenant of People.'" In *A Studies i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Isaiah*. VT Sup. 14. Leiden: Brill, 1967: 97-117.
- _____. "The Identity of the 'Servant' in Second Isaiah." In *A Studies i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Isaiah*. VT Sup. 14. Leiden: Brill, 1967: 75-96.
- Oswalt, John N.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Grand Rapids: Eerdmans, 1998.
- _____. "The Mission of Israel to the Nations." In *Through No Fault of Their Own?* (Eds.) W. V. Crockett and J. G. Sigountos. Grand Rapids: Baker Book, 1991: 85-95.
- Payne, D. F. "Recent Trends in the Study of Isaiah 53." *Irish Biblical Studies* 1 (1979): 3-18.
- Peters, G. W. *A Biblical Theology of Missions*. Chicago: Moody Press, 1972.
- Piper, J. *Let the Nations Be Glad!: The Supremacy of God in Missio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 Rowley, H. H. "Servant Mission." *Interpretation* 8 (1954): 259-72.
- _____. *The Servant of the Lord and other Essays on the Old Testament*. 2nd ed. Oxford: Basil Blackwell, 1965.
- Schultz, R. "The King in the Book of Isaiah." In *The Lord's Anointed: Interpretation of Old Testament Messianic Texts*. (Eds.) P. E. Satterthwaite, et al.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141-65.
- Scobie, Charles H. H. "Israel and the Nations: An Essay in Biblical

- Theology.” *Tyndale Bulletin* 43 (1992): 283-305.
- Smart, James D. *History and Theology in Second Isaiah*.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5.
- Smith, M. S. “Berit ‘am/Berit ‘olam: A New Proposal for the Crux of Isa 42:6.”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0 (1981): 241-43.
- Snaith, N. H. “The Servant of the Lord in Deutero-Isaiah.” In *Studies in Old Testament Prophecy*. (Ed.) H. H. Rowley. Edinburgh: T. & T. Clark, 1957: 187-200.
- _____. “Isaiah 40-66: A Study of the Teaching of the Second Isaiah and Its Consequences.” In *Studies on the Second Part of the Book of Isaiah*. Supplements to *Vetus Testamentum*. vol. 14. Leiden: E. J. Brill, 1967: 137-263.
- Strickland, Wayne G. “Isaiah, Jonah, and Religious Pluralism.” *Bibliotheca Sacra* 153 (1996): 24-33.
- Thall, Margaret E. “The Suffering Servant and The Mission of Jesus.” *Church Quarterly Review* 164 (1963): 281-88.
- Verkuyl, J. *Contemporary Missiology: An Introduction*. Trans. and ed. by D. Cooper, Grand Rapids: Eerdmans, 1978.
- Von Rad, G. *Old Testament Theology*. Vol. II. Trans. by D. M. G. Stalker, New York: Harper & Row, 1965.
-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BCSeries Vol. I. Waco, TX: Word Book Publisher, 1987.
- Westermann, C. *Isaiah 40-66*.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9.
- Whybray, R. N. *Isaiah 40-66*. London: Oliphants, 1975.
- Wilson, A. *The Nations in Deutero-Isaiah: A Study on Composition and Structure*. Lewiston: Edwin Mellen Press, 1986.
- Young, Edward J. *The Book of Isaiah*. Vol. 3. Grand Rapids: Eerdmans, 1972.

Young, Franklin W. "A Study of the Relation of Isaiah to the Fourth Gospel."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46 (1955): 215-33.

Youngblood, Ronald F. *Exodus*. Chicago: Moody Press, 1983.

Zimmerli, W. and J. Jeremias. *The Servant of God*. Naperville, IL: Alec R. Allenson, 1957.

_____. *I am Yahweh*. Trans. by D. W. Stott.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Abstract

**The Concept of Mission in Reformed Perspective:
Mission as Doxology
– Focused on “A Light to the Nations” in Isaiah 42:1-9 –**

Kim, Eun-Soo

In this article, I dealt with the problem of mission especially in the perspective of Reformed theology. Recently, many scholars and missionaries point out a ‘crisis’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mission and an emerging of ‘paradigm shift’ in contemporary missiology. Such phenomena were a reflection of rapid cultural changes and world-wide globalization which destroys the traditional conceptual frame of mission. Considering this situation, I presented a need of conceptual extension for Christian mission according to Reformed covenant theology.

First of all, I has presented that the foundation of Christian mission should be extended from the New Testament to the Old Testament(i.e., the whole Scripture). As a matter of fact, the subject matter of mission is one of the most disputable problems in the OT theology. Considering such a debate, it is my first point in this paper to examine whether there is or not an explicit missionary mandate in the text of Isa 42:1-9(cf. 49:6), the First Servant Song, especially in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phrase, “a light to the nations”, and related biblical texts. Therefore, we can regard “the Servant Songs of Isaiah 40-55”, especially Isa 42:1-9 as the missionary “high point” in the OT.

Secondly, considering the so-called ‘identity crisis’ in the traditional

concept of Christian mission in this postmodern cultural situation and religious pluralism, my second point is to seek a proper concept for Christian mission, especially in the position of Evangelical or Reformed theological perspective. For the issue, while analyzing the biblical text of Isa 42:1-9, we can also clearly find the true foundation and goal of Christian mission. The central message of the Bible is that the Triune God alone is the true God. However, this true knowledge of God which is first revealed only to Israel should be pronounced to the world and shared with the nations. This must be accomplished through the missionary task of the Servant, which is to bring forth God's **נְשִׂיבָה** and **תְּהִלָּה** to the end of the earth. And next, the ultimate goal of Christian mission is 'the Glory of God.' Therefore, in its ultimate sense, we can say that mission is a kind of "Doxology."

Mission is nothing other than to make all peoples on the earth know, worship, and glorify the true Living God, the Creator and the Savior. Even this praise should be extended to the whole world of God's creatures, 'heaven and earth.' Finally, according to this study, Christian mission is to make know the nations, all the peoples on the earth, that there is the one true God, the Creator and the Savior, and then let them praise God. This is the very God's blessing which is given to the nations through His servant people's missionary task.

Key-Words: the Concept of Mission, Mission in the Old Testament, Centripetal Mission, Centrifugal Mission, Mission as Doxology, a Light to the Nations, the Servant Song, the Servant of Yahweh, Reformed Theology